

# 일어나 함께 가자 < 미얀마 이주민 선교 스토리 >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10 >

샬롬!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태국 치앙라이에서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구정 명절 보내셨나요?

누가복음 말씀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늘 무언가를 요구하며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무익한 종임을 인정하고 묵묵히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매일의 호흡과 생명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거룩한 선교에 동역 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불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무익한 종인 저희들 안에, 또 사랑하는 미얀마 교회 안에 베푸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 성탄의 평화. 칼림바 특송

지난 12월 성탄절 이브 예배 시간에 메사이 은혜 교회에서 저와 7명의 학생들이 칼림바 특송을 하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 사랑하심은', '저 들밖에', '축하하오 기쁜 성탄' 의 네 곡을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매주 연습하였고, 서툴지만 아이들의 맑고 투명한 선율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성탄 예물로, 성도들의 마음에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칼림바 악기는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어 가정에서도 작은 악기를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성탄절 뜻깊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 푸른 초장으로 떠난 소풍: 치앙센 교회 어린이날 피크닉

1월 10일은 태국 어린이날이었습니다. 1월에 판 교회와 팡 교회에 방문하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린이 주일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17일에는 치앙센 그레이스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잊지 못할 일일 피크닉을 다녀왔습니다. 채수라 집사님 가정(다섯 자녀들의 연말 선교헌금)의 귀한 후원으로 치앙센 교회 어린이들은 높은 산 위 양떼 목장에서 양들과 마음껏 뛰놀고, 파미 지역에 있는 카페에서 맛있는 피자도 많이 먹었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높은 산으로 소풍을 가는 것이 처음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렌지 농장 체험과 교회 마당에서 비누방울 놀이를 하며 아이들은 맘껏 웃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목회하시는 치앙센 교회 왕꾸꾸라 목사님 가정의 가족 사진을 많이 찍어드릴 수 있어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치앙센 그레이스 교회 주일 학교 아이들이 교회 올 때 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새 생명의 정착

치앙센 교회 어린이 미노의 엄마인 '다오'가 작년 10월부터 출석하여 매주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예배를 섬깁니다.

올 1월에는 다오가 미얀마에서 온 지 일주일 된 19세 청년 '예서'를 전도하여 새신자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 계신 부모님을 두고 치앙센 지역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태국에 온 예서가 치앙센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소원합니다.

판 은혜교회에도 지난 1월 아카족 한 가족(부모와 자녀 4명)이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특히 막내는 생후 25일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생명입니다. 미얀마의 내전과 위험한 상황을 피해 태국으로 건너 온 지 석 달 된 이 가족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길 기도합니다

**복음의 발차기: 미얀마 교회 청소년 태권도 선교**

1월 14일, 제주 태권도 선교팀이 치앙라이 은혜 교회에 방문하여 태권도 공연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연 후 이어진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미얀마 아이들과 선교팀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현재 치앙라이에서 태권도 사역을 하시는 정광채 선교사님이 저희 치앙라이 은혜 교회에 오셔서 3월 1일부터 매주 주일, 20명(아직 미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태권도 훈련을 시작합니다. 매주 2시간 이상 영성 훈련과 태권도 훈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미얀마 청소년들이 이 훈련을 잘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들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지혜와 소망의 통로: 메사이 한국어 교실**

2025년 10월에 시작된 한국어 교실(매주 토요일)이 오는 3월 14일 수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어 초급 1, 2반 총 12명의 학생이 끝까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정형편으로 미얀마로 돌아가야 했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계속 공부한 아이들은 이제 한국어 발음도 좋아지고 기본적인 한국어를 제법 말하고 단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어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4월 사역 일정**

작년 2월 김재욱, 노미화 선교사님(인도 선교사)을 모시고 태국 북부 치앙라이 지역 미얀마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리조이스 사모 수련회와 미얀마 교회 교사강습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3월 23-25일, 2차 리조이스 사모수련회에 7명의 미얀마 사모님들이 참석합니다(4명은 태국 거주 미얀마 사모님, 3명은 미얀마 타츨렉에서 옴) 그리고 19일 메사이 교회 어린이 집회, 20일 일일 교사 강습회, 21일 치앙센 교회 어린이 집회, 22일 치앙라이 교회 어린이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마다 참석하는 어린이들, 교사, 사모님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고, 이들이 주님과 친밀해 지며 깊은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작년 12월 이승현 선교사의 선교사 비자 인터뷰 후 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0일 한국에 방문하여 태국 대사관에서 선교사 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태국은 자유의 나라이지만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교사 비자 쿼터가 제한적이라 선교사 비자 받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국 거주 5년 만에 선교사 비자를 발급받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승현 선교사는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체력이 약해져서 건강검진과 치료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지내는 한달 동안 비자 발급과 치료가 다 이루어지고, 여러 교회와 성도님들과의 아름다운 선교 동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 6: 39)**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곳 선교지에서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보배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2026년 2월 26일 이방의 빛 이승현, 윤선휘 선교사 올림

**\* 저희를 위한 기도와 후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

1. 3월 23~25일에 열릴 '제2차 리조이스 사모 수련회'에 7명의 미얀마 사모님들이 전원 참석하여 영적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사 강습회와 어린이 집회를 인도하시는 김재옥, 노미화 선교사님 팀과 저희 부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2.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태권도 선교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말씀과 QT로 무장하게 하시고, 장차 태국 미얀마 복음화를 위한 영적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3. 저희 부부의 4월 한국 방문 시 선교사 비자 발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승현 선교사의 심한 허리 통증과 약해진 체력이 검진과 치료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4. 대학원에서 국제학을 공부하는 예진이와 전방에서 군 복무 중인 하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한국의 부모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시길, 파송 교회 및 협력 교회 모든 동역자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lovekolkata



+66-09369-49590 (태국) / 010- 4065- 7579 (한국)



under1231@daum.net

후원계좌

하나은행 920-193076-131 ( GMS 이승현/ 윤선희 )  
우리은행 165-08- 271938 ( 이승현 )

